

자유의 갈망 노래한 '거듭남'의 시인

《황동규 시전집 I·II》·《황동규 깊이 읽기》 펴낸 황동규 시인

“내 사랑하리 시월의 강물을/석양이 질어 가는 푸른 모래톱/지난날 가졌던 슬픈 여정들을, 아득한 기대를/이제는 홀로 남아 따뜻이 기다리리.”(《시월》)

“나는 모래바람이었다./태어나면서부터 이곳저곳 불려다디던/모래바람이었다./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불리고 날리고하기를 좋아했다./때로 사람들 속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그들의 눈을 맴게도 했다.”(《전신마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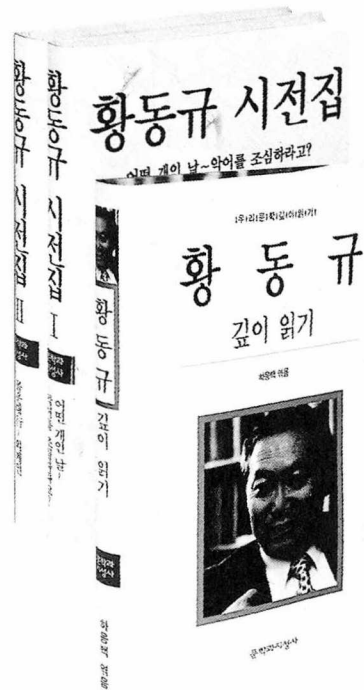
인생 60, 시력 40년의 문학적 여정

‘푸른 모래톱’에서 슬픈 여정을 노래했던 약관의 황동규 시인이 이제 수술대 위에서 ‘모래바람’으로 살아온 날들을 회상하는 이순의 나이에 접어들었다. 1938년과 1998년, 《시월》과 《전신마취》 사이엔 인생 60, 시력 40년의 선긋은 마디가 새겨져 있다. 시인의 문학적 떠돌음에 대한 이정표로 문학과지성사에서 《황동규 시전집 I·II》와 함께 그의 자전적 에세이, 동료 문인·평론가들의 인물 평과 평론을 모은 《황동규 깊이 읽기》를 펴냈다.

“아직까지 매듭을 지어놓은 일이 없어서 회갑연을 갖지 않으려 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귀수술을 받고 난 후 《전신마취》, 《산당화의 추억》, 《죽음의 골을 찾아서》 등을 잇달아 발표해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한 창작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권유도 있고 해서 전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황동규 시인은 1938년 평안남도 영유군 숙천에서 부친 황순원씨와 모친 양정길 여사 사이에서 3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9세 때 서울고등학교 교지에 연가 《즐거운 편지》를 투고해 새로운 연시(戀詩)의 영역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58년 서울대 영문과 시절(21세) 《현대문학》에 《시월》, 《즐거운 편지》, 《동백나무》 등으로 미당의 추천을 받아 등단한다.

황동규 시인의 문학적 연대기는 크게 4기로 나뉜다. 《시월》, 《즐거운 편지》시절부터 《비가》 연작시까지 이어지는 1기는 인간의 절대를 향한 비극적인 자세를 모티프로 하고 그 비극과 대결하려는 지적 의지를 보여준다. “당신이 나에게 바람부는 갈대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나는 거기에서 얼마든지 쓰



리지는 갈대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는 《기도》의 견고한 의지가 형상화되는 때이다.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이르면 사회 비판 의식이 고조된다. “말을 들어보니/우리는 약소민족이라더군./낮에도 문 잠그고 연탄불을 쬐고 유신(有信) 안약을 넣고 에세이를 읽”(《태평가》)고, “꿈판도 깨고/찬 땅에 앞드려/눈도 코도 입도 아조아조 비벼버리고/내가 보아도 내가 무서워지는”(《계엄령 속의 눈》) 엄혹한 정치현실이 우의적으로 표현된다.

1982년부터 1995년까지 14년 동안 70편의 연작시 《풍장》이 이어진다. 이 때 “바람을 이불처럼 덮고/화장(化粧)도 해탈(解脫)도 없이/이불 여미듯 바람을 여미고/마지막으로 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바람과 놀게 해다오.”(《풍장1》)라는 절창을 낳는다.

“《풍장》 연작은 죽음을 통한 삶, 죽음과 같이 사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죽음을 천천히 길들여 그것과 친숙해질 때 삶도 새롭게 보입니다.”

《미시령 큰바람》(1993) 이후부터 시인은 또다시 변화한다. 시인의 정체성에 대해 관심을 집중해, 시인이 ‘외계인’처럼 세계를 새로 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발견에 이른다. ‘거듭남’을 발견하는 시인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나의 시를 관통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갈망입니다. 인간의 자유는 변화 속에서 가능

황동규씨는 지금까지 시집 《어떤 개인 날》(중앙문화사, 1961), 《비가》(창우사, 1965), 《태평가》(1968), 《열하일기》(이상 현대문학사, 1972),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1978), 《악어를 조심하라고?》(1986), 《물운대행》(1992), 《미시령 큰바람》(1993), 《풍장》(1995), 《외계인》(이상 문학과지성사, 1997) 등 10편과 시론집 《사랑의 뿌리》(문학과지성사, 1976), 산문집 《겨울 노래》(지식산업사, 1979), 자작시 해설집 《나의 시의 빛과 그늘》(중앙일보사, 1994) 등을 펴냈다.

황동규 시인.



하지요. 인간은 자신의 과거로부터 해방될 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

이러한 자유와 거듭남에 대한 갈망은 새로운 시형식을 필연적으로 잉태한다. 바로 ‘극서정시’ 이론이 그것이다.

“문학은 인간의 변화를 다루어야 하고 또 한 인간형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 변화를 담을 수 있는 형식이 극서정시 이론이지요. 시 속에서 무슨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 시적 자아에 존재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서사시적 정신, 소설의 산문정신까지도 시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눈 내리는 부석사에서 “가본 부석사와 못가본 부석사가 만나/서로 자리를 바꾸는 광경이 나타”나고 “내 모든 것이 나에게 들켜/부석사가 되고 더러는 떨어져나가/하회가 된다”처럼 극적인 변화의 역동성을 포착하는 《겨울의 빛》 등에서 이러한 극서정시의 진경이 펼쳐진다.

황동규 시인에게 자유와 거듭남의 주제는 영원한 떠돌음의 여행체험으로도 변주되어 나타난다. 그에게 여행시편이 많은 것은 끊임 없는 거듭남의 방식이 여행이기 때문이다.

“여행은 익숙한 것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여행은 호기심의 한 양태이고 시적 자아의 거듭나기에 관여하죠. 시를 쓰려고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의 과정에서 자

연스럽게 시가 포착됩니다.”

시인은 물론대, 다산초당, 미시령, 내린천, 청령포를 떠돌고 북해, 아이오와, 브롱스, 피렌체를 어슬렁거리며 “오르페우스와 윤선도(尹善道) 모두 악기를 잘 닦지만/나에겐 여행이 악기다”(《지방도에서》)는 여행론을 펼친다.

최근, 문학계간지 《문학과 사회》에 〈범종소리, 들어갈 수 없는〉을 송고했다. IMF사태 이후 고아원에 아이를 맡겨둔 아버지의 절절한 심정을 그린 장시다. 요즘 들어 자신의 시가 점점 길어지는 것에 대해 시인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짧은 시들은 대개 시인이 시를 컨트롤합니다. 그러나 시가 길어지면 시가 시인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결국 긴 시를 쓴다는 것은 전신으로 시와 시인이 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와 호기심, 현재진행형과 거듭남의 시인은 남다른 계획을 세워 둔 바 없다. 다만 ‘시가 나를 이끄는 대로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시를 쓰는 일’만이 시인에게 주어진 길이요, 계획이라면 계획인 셈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거듭 변하는 시인의 문학적 행로를 지켜보면서 그것을 자산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 박천홍 기자